『종교와 문화』 제 4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1. pp. 35-69.

1920년대 차천자 등극설 연구

박 인 규*

Ⅰ. 문제제기
Ⅱ. 차천자 등극설의 내용
Ⅲ. 증산 출세설
Ⅳ. 독립운동과 성전 건축
Ⅴ. 등극설에 대한 비판
Ⅵ. 맺음말

Ⅰ. 문제제기

1920년대 신문 자료를 살펴보면 태을교·훔치교·선도교라고도 불렸던 보천교와 보천교 교주 차경석에 관련된 기사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 보천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종교학계 및 역사학계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천도교에 비해 연구가 훨씬 미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당시의 보천교는 천도교 못지않게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고, 식민 당국도 두 종교를 소위 '유사종교'의 양대 산맥으로 간주하면서 보천교를 감시·취체·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1924년 갑자년에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제위에 등극할 것이라는 이른바 '갑자등극설'이 세간에 널리 유행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사들이 많다. 관련 연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선임연구원

구에 따르면, 보천교 관련 기사 건수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1910년대 5건, 1920년대 954건, 1930년대 330건, 1940년대 10건에 이르는데, 특히 1924년(135건)과 1925년(385건)에 기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1924-1925년에 많은 기사가 생산된 것은 보천교와 차경석의 갑자등극설에 그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1)]

'차천자 등극설'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이강오,[2)] 김재영,[3)] 안후상[4)]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차천자 등극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차천자 등극설의 종교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였다. 일제는 보천교를 종교를 가장한 정치 운동이라고 보았으며, 김재영도 보천교는 정치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지만, 보천교는 강증산의 제자 차경석을 중심으로 한 증산을 신앙하는 종교 운동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차경석 등극설' 또한 외견상으로는 교주 차경석이 갑자년 또는 기사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설이지만 그 종교적·신앙적 동인은 증산의 출세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보천교 운동을 단일한 성격의 운동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5)] 보천교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신구파로 분열될 정도로 다층성과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차천자 등극설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보천교 내에서도 차천자 등극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흐름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당시 언론은 보천교도를 미신 사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민중으로 폄하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도 보천교

---

1) 김철수, 「일제강점기 보천교 관련 신문기사의 실태와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4』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2018), 5-26.

2) 이강오, 「보천교」, 『전북대학교 논문집 8집』 (전주: 전북대학교, 1966), 9-73.

3)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9권 (2001): 99-126.

4) 안후상, 「보천교의 고천제와 교단 공개」, 『한국종교』 45 (2019): 357-393.

5) 강돈구는 신종교 일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보다는 개별 교단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돈구, 「신종교 연구의 길」, 『한국종교』 23 (1998): 121-152.) 본 논문의 문제 의식은 개별 교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류가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민중을 다소 피동적·부정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능동적 종교 신앙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차천자 등극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Ⅱ. 차천자 등극설의 내용

1920년대 조선 사회에 유행하였던 차천자 등극설의 내용은 신문 기사와 공문서(관의 조사자료, 판결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차천자 등극설을 구성하는 여러 화소(話素)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중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화소도 있고, 다소 이질적인 화소도 있다. 이는 보천교 교도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교리적 이해가 있었는가 하면, 상호 불연속적인 이해도 병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교주인 차경석의 종교적 신념과 핵심 간부들의 교리 이해 그리고 일반 보천교 민중의 신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그들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천교 운동을 다층적 신앙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천교가 다층적 신앙 양상을 보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는 통일된 교리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된 교리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바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 교단이 급성장 한 것이다. 교조인 강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증산의 언행을 담고 있는 교리서나 경전이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6] 그러다 보니 조직 체계상 상급자에게 교리를 구전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고 신앙인들은 제각기 상이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리를 구성해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 당국에 의해 공인되지 못한 이른바 '유사종교'라는 굴레 하에서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하면서 집회가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통일된 신앙을 내재화 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핵심 간부들

6) 증산계 교단 전체에서 증산의 언행을 담은 간행 서적 중에 가장 이른 것이 이상호가 보천교에서 탈교한 후 1926년 발행한 『증산천사공사기』이다.

은 차경석의 종교적 신념과 대체로(물론 대립각을 세운 간부들도 있긴 하였지만) 공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발언을 통해 당시 차경석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1920년대 신문 기사와 법원 판결문 그리고 관의 조사문서인『普天敎一般』[7]과『洋村及外人事情一覽』[8]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차천자 등극설과 관련된 화소를 추출해낼 수 있다. 아래 12개로 추출된 화소들은 해당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차천자 등극설을 파악하는 데 긴요한 내용이다.

1. 보천교의 교조는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이다. 그는 신성한 인물로 1909년 서거하였으나 천상에 올라 옥황상제가 되었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내려올 것이다.
2. 보천교의 교주는 차경석(車京石)으로 증산의 수제자이다.
3. 증산이 내세할 때 차경석은 조선의 왕 또는 천자가 될 것이다.
4. 증산이 내세하는 시기는 갑자년(1924) 또는 기사년(1929)이다. 또는 다른 특정한 시기이다.
5. 그때에 차경석은 계룡산 또는 정읍에 도읍을 정하고 새 나라를 열 것이다.
6. 나라의 명칭은 '대시국(大時國)'이다.
7. 교도들은 치성금 또는 기부금을 내고 입교를 한다.
8. 남은 금액은 성전의 건축에 쓰인다.
9. 또한 조선의 독립운동에 쓰이며, 상해임시정부에도 보낸다.
10. 보천교는 종교단체이나 참된 목적은 조선의 독립운동의 자금 모집에 있다.
11. 증산과 차경석의 신통력, 보천교의 교세와 자금, 상해임시정부의 군대가 합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
12. 독립이 되면 보천교 간부들은 직위에 합당한 관직을 수여받을 것이다.

---

7) 全羅北道,『普天敎一般』(學習院大學敎 東洋文化硏究所 B393, 1926).

8) 平安南道,『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學習院大學敎 東洋文化硏究所 M2-100, 1924).

차천자 등극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추출된 각 화소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보충해보고자 한다. 먼저 화소 1에서 보듯, 보천교도들 대다수가 보천교의 교조(敎祖) 또는 개조(開祖)를 증산 강일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교도들은 강증산이 과거에 별세하였으나 천상에 올라 옥황상제가 되었고, '내세(來世)한다', '다시 세상에 내려온다', '다시 살아 조선을 통일한다', '다시 출현한다', '부활한다', '환생한다' 등의 표현에서 보듯, 언제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이라 신앙하였다. 보천교의 성금을 관리하는 재무주임이자 60방주였던 김홍규[9]는 "강증산이 다시 출현해 조선을 통일하는 일을 위해 태을교도는 일치협력해 그를 위해 힘을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증산이 출현해 조선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교도를 준비해 두고 필요한 건설비용으로 태을교도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10]라고 하며 증산이 다시 출현하여 조선을 통일한다고 하였다. 60방주인 이성영(이정립)은 "훔치교의 개조 강증산은 명치42(1909) 중에 사망했으나 갑자년에 환생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수제자 차경석은 동시에 조선의 제왕으로 계룡산에 도읍해 교도는 그 기능에 처한 관직을 받기에 이르기 된다."[11]고 하였다. 그는 보천교의 개조가 강증산이며 1909년 사망 후 갑자년에 환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시 언론 또한 보천교의 교조가 증산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매일신보』 1921년 2월 11일 자 '太乙敎 혁신, 경성에 본부를 두고 포교를 홀 터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ᄐᆡ을교(太乙敎) 증산 강일슌씨를 기교 교조로 ᄒᆞ야…성령 구제ᄒᆞᆷ을 교의 ᄯᅳᆺ으로 한 것인 바…"라 하였고, 동일 신문 1921년 7월 22일 자 '皇極位에 登極ᄒᆞ면 각 대신 관찰사 군수갓은 것은 전부 ᄐᆡ을교 신도로 등용'이라는 기사에서는 "대졍 십삼년에ᄂᆞᆫ 됴션 독립의 긔운(機運)이 도라와 강증산(姜甑山)이라 하ᄂᆞᆫ ᄐᆡ을교(太

9) 탄허 스님의 생부.

10)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20, 1923년 4월 4일, 180.

11)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590-591.

乙敎) 교쥬가 쇼싱하야 황뎨위에 등극홀 터인대 그 때에 각 대신과 관찰사 군슈갓흔 관직은 젼부 ㅌ을교도 중에셔 등용홀 터인즉…"이라 하였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뎨일세 교주가 집에 잇서서는 호(號)를 증산(甑山)이라하고 수다한 뎨자를 가르치엇스며…"[12]라 하였고, "보텬교가 지금으로부터 십륙년 전에 교조 강증산(姜甑山)이 교를 창설한 이래로 여러 가지 파란을 격고 그 후 차교주가 대를 이어 비밀히 교를 전파하다가 세상에 나타나기는 지금으로부터 삼년 전이라."[13]고 하였다.

일제 당국도 1924년 작성한 『洋村及外人事情一覽』과 1926년 작성한 보천교에 대한 비밀문서인 『普天敎一般』에서 '교조(敎祖)'를 증산이라 하였고, 한국종교에 관한 여러 저술을 남긴 이능화 또한 보천교의 교조인 증산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의 기록은 언론 기사, 판결문, 일제 당국의 여타 자료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자료이다.

> 또 태을교 또는 훔치훔치교란 것이 있다. 근년에 호남에서 강증산, 이름은 일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28세에 금구군 금산사로 들어가 이 절의 동쪽 바위에서 백일 동안 노좌하다 마침내 득도하였다. 금산사 미륵불상의 화신이라 칭하였으며 사후에는 천당에 올라 태을원군이 되었다고 한다. 이 교를 받드는 사람들은 북쪽에 옥황상제의 영위(靈位)를 설하고 소의 머리와 다리를 사용하여 제사를 행하며 법수 한 그릇으로 신을 맞이하고 23자 주문 '훔치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바아'을 송독한다. 만약 연고가 있는 사람은 1·2·3·4·5·6일 내지 7일간 수행하면 상제를 친견할 수 있게 된다. 사람마다 본 바가 다르지만 이때 이를 승안(承顔)이라 이르며 유명(幽明)이 소통할 수 있으며 신불(神佛)과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강필을 하고 시문을 지을 수 있고 천약이 내려와 낫지 않은 병이 없다. 수련의 공이 가득하게 되면 지척에 있는 것처럼 멀리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개안(開眼)이라 한다.[14]

---

12) 「風說이 傳하는 太乙敎 4」, 『동아일보』 1922.02.24.

13) 「普天敎 革新會 新舊 兩派로 分한 內訌」, 『동아일보』 1924.09.17.

14) 이능화, 「朝鮮古代神敎已行」, 『조선불교통사』 하편 (京城: 新文館, 1918), 1097.

결국, 당시 신앙인들과 언론의 시각에서 강증산이 보천교의 교조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소 2의 내용은 보천교의 교주는 월곡 차경석이며 그는 강증산의 수제자라는 것이다. 1901년 음력 7월 전라북도 모악산 대원사에서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은 이후 종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십여 명의 종도(從徒)를 거느렸다. 증산의 사후 종도들은 황망하여 구심점을 잃고 흩어졌다가 고판례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차경석이 교권을 장악하게 되었다.[15] 차경석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여타 증산의 친자종도들은 각각 교단을 열어 독자적인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김형렬은 미륵불교를, 안내성은 증산대도교를, 고판례는 태을교 등을 각각 설립하였다. 이들 교단의 교세가 미미[16]하였던 반면에 차경석의 보천교는 전 조선에 지부를 두었을 만큼 교세가 컸다.

당시 보천교 신앙인들과 언론 그리고 일제는 보천교의 교주가 차경석이며 그가 증산의 제자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판결문에 나타난 몇몇 신앙인들의 발언을 보면 증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차경석과 계룡산 건국만을 말하고 있다. 즉 일부 종도들은 신앙의 중심을 교조인 증산보다 교주인 월곡 차경석에게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차후 보천교가 증산-월곡을 신앙하는 구파와 월곡만을 신앙하는 신파로 나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17]

화소 3과 5는 증산의 내세와 차경석에 의한 새 국가 건설에 대한 내용이다. 화소 4에서 보듯이, 신앙인들은 갑자년(1924)과 기사년(1929)과 같은 특정 시기에 천상의 옥황상제로 있던 증산이 이 세상에 내려와 천하를 통일하거나[18] 조선을 통일하

---

15)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44-62.

16) 村山智順은 『朝鮮の類似宗教』에서 일명 훔치계 단체(증산계 단체)로 보천교·무극대도교·미륵불교·증산대도교·증산교·동화교·태을교·대세교·원군교·용화교·선도교의 11개 단체로 분석하였다. 특히 보천교 관련해서는 입교, 연혁, 교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무극대도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두 단체 외에는 교세가 미진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17)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117.

18)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2172, 1921년 6월 27일, 421.

거나[19] 조선의 황제가 된다[20]고 하였다. 그렇게 증산이 내세할 때, '증산은 전 세계를 통일-차경석은 조선의 왕이 됨' 또는 '차경석이 조선의 왕이 됨' 등에서 보듯이, 차경석의 위상이 조선의 통치자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경석은 계룡산 또는 정읍 보천교 본부를 중심으로 도읍을 정하고 개국(開國)을 할 것이며(화소 5), 그 때의 국명은 '대시국(大時國)'(화소 6) 될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차경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신도들은 치성금 등을 내고 입교식을 행한다(화소 7). 입교 시에는 '치성제(致誠祭)'라는 명칭의 제사를 지내는데 택일(擇日)을 하여 산간·냇가·인가에서 떨어진 가옥 등 은밀한 장소나 입교자의 자택에서 시행하였다. 또 입교자는 치성비 또는 치성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입교치성의 사례이다.

> 손재봉 : 입교 때에는 치성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낸다. 그 정면에는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鍵之位)'라고 대서(大書)한 패가 있고 그 옆에 조원의 성명을 쓴 계약서를 내려놓는다. 육류와 어류를 공양하며 주문을 외우고 닭의 생피를 마시며 일심동체(一心同體)를 서약한다. 또 위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치성비(致誠費)·치성금 간혹 표신금(表信金)이라 하고 6인조는 30원, 12인조는 15원, 8인조는 10원, 15인조는 5원을 낸다. 제사에 사용된 것 이외는 본부로 보내는 규칙이 있다.[21]

인용문에서처럼, 치성제를 거행할 때에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鍵之位)'라고 쓰인 위패를 설하고 그 옆에 입교자의 성함이 적힌 서약서를 놓는다. 보천교는 증산의 신격을 옥황상제라 신앙하기 때문에 옥황상제는 증산을 의미하며 곧 치성제는 증산에게 올리는 의식이다. 제물을 마련하여 설위하고 주문을 외우며 닭, 돼지의 생피 또는 산수(山水)를 마시고 함께 뜻을 도모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

19)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148.

20)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738, 1919년 1월 16일, 744.

21)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999-1000.

이 서약은 이후 일제에 붙잡히게 될 때 차경석의 등극, 독립 시도, 결사 등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조를 '옥황상제'인 증산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화소 8과 9에서 보듯이, 신도로부터 거출된 치성금은 성전의 건축, 조선의 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에 의연 등으로 쓰였다. 특히 '고폐(告幣)'라고 하여 자산이 있는 신도들에게 다액의 헌금을 봉헌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22] '고폐'는 본부로 보내져 조선의 독립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암호로 사용되었다. 권태추라는 신도는 "고폐금 100원 이상을 낸 자는 독립의 때에 그자를 세록신(世祿臣)에 등록해 금액의 다과에 따라 공후백자남의 작위를 주고 세습하여 그 집을 영구히 대우하는 것"[23]이라 하였는데, 당시 고폐금을 많이 헌납한 자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는 담론이 굳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소 12의 내용처럼,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차경석이 새로운 국가의 수좌에 등극하게 되면 보천교 교직에 상응하는 관직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24]

옥황상제인 증산의 내세(來世)와 그의 신적 권능으로써 또는 증산이 수제자인 월곡으로 하여금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일본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화소 11). 이러한 종교적이고도 신비적인 요인 외에 보천교인들은 보천교의 교단 세력과 자금력이 상해임시정부의 정치력과 군사력에 결합되면서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신앙하였다. 한 간부의 증언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권태추(12임) : 나는 6인조 손재봉(孫在鳳)의 부하로 동인은 훔치교의 일에는 가장 훤하게 알고 또 60방위의 한 사람인 이상호(李祥昊)는 나와 간절한 사이로, 두 사람으로부터 상세한 비밀을 들었던 것이다. 훔치교는 작년 4, 5월경부터 60방위 이하의 조직으로 개선하고 운동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한 바이다. 『비결』이라는 문서에 갑자년에는 세상이 일변한다는 내용의 예언도 있다. 상해가정부(上海

22)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刑第158號, CJA00021725, 1921년 6월 2일, 383.

23)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596-597.

24)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4월 22일, 344.

> 假政府) 기타 중국 방면에 있는 조선독립 결사단도 더욱 운동을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또 국교상 일본은 중국 또는 미국과 대정13년(1924)까지는 전쟁을 시작할 기운으로 향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훔치교의 신도를 확장하고 조직을 완성하면 수십만 명의 단결이 장래 또 수백만 원의 자금이 장래의 그 날에는 위의 기회를 틈타 가정부 기타 독립 기관과 호응하고, 수십만의 교도의 대단결이 재작년 소요 당시와 같이 일제히 일어나고, 소요에 있어서는 독립의 목적을 관철하는 일이 장래에 있을 것이다. 재작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요할 때는 다수민이 위해를 입고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 훔치교의 선전에 따라 대단결을 이루고 일심동체를 서약해 놓으면 기회를 만나기까지는 안전하다고 들었다. 적어도 생피를 마시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도가 되어 일심동체를 맹세하고 각 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독립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됨은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서약하고 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위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말한 대로 독립자금이라는 것에 대해 '고폐'라는 암호를 이용하여 모집하고 15인조의 사람이라도 자력이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서 100원, 1,000원, 10,000원 등의 출자하는 식으로, 이에 대한 숫자의 암호 문자를 만들고 영수증을 주었다.[25]

12임이라는 직책의 권태추는 입교와 맹세, 고폐, 조선의 독립, 상해임시정부와의 관련 등에 대해서 증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여타의 신도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차천자 등극설과 관련된 12개의 화소들을 검토해보았다. 차천자 등극설의 주요 의미와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몇 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주요 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재검토를 요하는 화소는 첫째, 증산이 출세한다는 '증산 출세설'이며(화소 1) 둘째, 증산이 출세하는 시기에 관한 것이고(화소 4) 셋째, 독립운동 및 성전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며(화소 8, 9, 10) 넷째, 차천자 등극설에 대한 교단 내의 비판담론이다. 이 네 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화소들이 차천자 등극

25)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158號, CJA0002172, 1921년 6월 2일, 387-390.

설의 종교적 동기, 독립운동의 배경, 다층적 담론구조 등을 밝힐 수 있는 대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Ⅲ. 증산 출세설

1. 출세설의 내용

먼저 살펴볼 부분은 증산이 내세(來世) 즉 출세(出世)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차천자 등극설의 주요 핵심이 바로 증산 출세설이라고 생각한다. 교주인 차경석이 증산의 친자종도로서 증산을 깊이 신앙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천교의 교리상으로도 종교 운동의 요체가 증산에 대한 존숭과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즉 차경석이 서슬 퍼런 식민지 일제 치하에서 교도들이 탄압받고 자신도 끊임없이 감시받는 억압된 상황에서 갑자년 또는 기사년에 등극하겠다며 무리하게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면에는 종교적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증산 출세설은 보천교 간부들의 증언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그들 또한 교주의 신념에 공명하여 포교 운동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주인 차경석의 증산에 대한 신앙과 증산 출세설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차경석의 증산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자.

차경석의 부친은 동학의 접주 차중필(車重弼)로 1894년 관군에 잡혀 처형되었다.[26] 그는 부친에게 영향을 받아 영학당(英學黨)[27]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1899년 관군에 체포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28] 그러다 1907년 음력 5

26) 박종렬, 『차천자의 꿈』 (고양: 장문산, 2002), 22-27.

27) 영학당은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뒤 농민군 잔여 세력, 의병, 일반 농민들이 모인 조직으로 동학농민군의 이념인 '척왜양(斥倭洋)'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계승하며 1898년 흥덕에서 처음 봉기하였다. 박맹수,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2015): 150.

월 소송건으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도중 증산과 그의 제자를 만났다. 차경석은 증산의 언행에 비범함을 느껴 제자가 되었다.[29] 그가 증산을 따른 기간은 다른 종도들에 비해 짧은 편이었으며, 증산이 서거한 1909년 음력 6월 24일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증산의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전승 기록에서, 차경석은 증산의 천지공사의 수종을 들거나 참여하였으며, 증산으로부터 마음가짐이나 의례에 관한 가르침을 듣기도 하였고, 증산이 쓴 친필 글을 받기도 하였다.[30] 여타의 종도들이 증산을 '상제'의 화현으로서 천지공사를 통해 천지를 개벽하는 구원자로 신앙하였던 것처럼 차경석 또한 종도들의 신앙에 공명하였다. 그가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과 만나 인터뷰[31]한 내용에서 그의 신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敎主曰: 天은 別로 有하니 天이라함은 神도 안이요, 人도 아닌 物이라. 天이 有하고 上帝가 有하다. 吾敎에 三壇이 有한대, 第一壇은 天이요 第二壇은 上帝이니, 主体는 上帝이고 上에 天이 有하다. 上帝만 言한 즉, 天은 別個物이 되지만은 敬天이라 하면 包含된 것임니다.
>
> 村山曰: 그러면 결국은 天이 原体요, 上帝는 卽 모든 일에 活動하는 意味로 보는 것임니가.
>
> 敎主曰: 天은 本是 虛無한 것이요, 主體는 玉皇上帝이니 總宰하는 權理가 有하다. 神이라 함은 名目이 有하니 日月이 卽 上帝이라. 上帝도 天의 範圍內에 在한 것입니다. 十二戒銘中에난 獨特히 上帝를 尊한다 言하였음니다.
>
> 村山曰: 玉皇上帝와 姜甑山과 座次의 關係가 엇떠함니가.
>
> 敎主曰: 그 자리가 卽 上帝입니다.

---

28)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2), 16-17.

29)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70-72.

30)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71-73.

31) 차경석과 무라야마 지쥰과의 문답기는 보천교에서 발행한 『교전』에 실려 있다. 시작은 "布敎二十六年十月十日半傾에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囑託 村山智順이 來하야 敎主와 相見人事 후 村山曰 …"이라 하였다. 보천교에서 1909년이 포교 1년이므로, 1934년 10월 10일에 무라야마 지쥰이 차경석을 방문하여 인터뷰가 이뤄진 것이다.

村山曰: 甑山先生의 人間에 生하심이 卽 玉皇上帝가 化現하심이심닛가.
敎主曰: 그렀읍니다. 生存時에 내가 玉皇上帝라는 말삼도 有하였습니다.
村山曰: 敎徒가 篤實하게 敎를 信하면 上帝와 同樣으로 됨니가.
敎主曰: 太乙呪를 誦讀하야 開眼이 되면 玉皇上帝를 承顔하야 肉体는 此地에 在하여도 神은 玉京에 가서 問答하는 法이 有합니다.[32]

인터뷰에서, 차경석은 보천교의 신단에 대한 설명에서 천(天)의 주체로서 옥황상제를 말하고 증산이 바로 옥황상제의 화현이며 태을주를 송독하여 개안이 되면 옥황상제를 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산천사공사기』를 편찬한 이상호와의 문답에서 차경석은 『동경대전』에서 최제우가 문답하였던 '상제' 신명이 바로 증산이라고 말하였으며,[33] 그가 교단을 창설하고 1922년 처음으로 교단의 핵심 신조인 12계명을 발표할 때도 첫 계명으로 '존상제(尊上帝)'를 설정하였다.[34] 이와 같은 내용에서 차경석의 증산에 대한 신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산 출세설은 어떤 내용인가? 전승 기록에서 증산의 언행을 살펴보자.

① 또 가라사대 내가 出世할 때에는 天地가 震動하고 雷聲霹靂이 大作 하리니 잘못 닥근 사람은 죽지는 아니하나 안질 자리가 없서서 參席하지 못할 것이오. 갈 때에는 짜라오지 못하고 업드러지리라.[35]

②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十만 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32)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정읍: 보천교중앙총정원, 1981), 507-508.

33)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1. "天師께서 大法國 天啓塔 게시다가 西洋에서 失敗한 利瑪竇를 다리시고 天下에 大巡하시다가 金山寺 三層殿 金彌勒에 臨御하사 三十年을 經한 後 崔濟愚의게 濟世大道를 啓示하섯더니 濟愚가 能히 儒家典憲을 超越하야 大道의 眞趣를 闡明치 못함으로 드듸어 天命을 거두시고 甲子로부터 八卦에 應하야 八年을 經한 後 辛未에 親히 誕降하시니 東經大全과 밋 歌詞中에 이른바'上帝'는 곳 天師를 이름일진저 (此節은 車京石 傳述)"

3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정읍: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30a.

35)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京城: 東華敎會道場, 1929), 109-110.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 내리라."[36]

③ 金亨烈의 집이 貧乏하야 麥飯으로써 先生께 供養하더니 八月 秋夕節을 當하야 할 일 업시 食鼎을 팔아서 節饌을 準備하려하니 "先生이 가라사대 솟이 들석이니 彌勒佛이 出世하리로다." 하시고 亨烈로 하여금 牛尾한개를 求하야 불을 피우고 두어 번 둘너 낸 後에 亨烈을 命하사 太陽을 보라 하시니 亨烈이 우러러 봄에 日暈이 둘너 잇 더라. 先生이 가라사대 이제 天下大勢가 方病大腫이라. 내가 腫을 破하엿노라 하시니라.[37]

④ 하로는 모든 從徒다려 일너 가라사대 나의 얼골을 잘 익혀두라. 後日에 出世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또 가라사대 예로부터 神仙이란 말은 傳說로만 나려왓고 본 사람은 업섯스나 오직 너희들은 神仙을 보리라.[38]

⑤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 일순 호남 서신사명(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때에 신 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하셨도다.[39]

위 내용에서 ④와 ⑤는 1909년(음) 6월 24일 증산이 서거하기 며칠 전에 하였던 발언이라 전해진다. 증산은 ⑤에서 차경석에게 글을 쓰게 하고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암시하였으며, ④에서는 다시 출세할 것을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다시 출세할 때에는 눈이 바라보기 어려운 즉 신성한 존재로서 나타날 것이라 예시하였다. ①에서는 증산이 이후 출세할 때 뇌성 벽력이 천지에 진동하는 등 기상이변이 일어남을 말하면서 수행을 잘못한 이들은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 경계하며 신앙과 수행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②에서는 그렇게 증산이 출세할 때 신앙인들은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신명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③에서 이러한 증산의 출세는 곧 불교에

3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법 3장 44절.
37)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43-144.
38)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1.
3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행록 5장 33절.

서 말하는 내세불인 미륵불의 출세에 비유됨을 말하였다. 미륵과 관련하여 증산은 인신(人身)으로 탄생하기 이전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에 30년 간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으며,[40] "나는 곳 彌勒이니 나를 보고 십거든 金山彌勒을 보라. 金山彌勒은 如意珠를 손에 들엇스나 나는 입에 물엇노라."[41]라 하여 스스로를 미륵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기록에서 증산은 "또 가라사대 耶蘇敎徒는 耶蘇의 再臨을 기다리고 佛敎徒는 彌勒의 出世를 기다리고 東學信徒는 崔 水雲의 更生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히 저의 스승이라 하야 따르리라."[42]고 하여 자신이 곧 동학과 불교·기독교 등에서 염원하며 기다리는 구원자임을 암시하였다.

차경석을 비롯한 보천교의 핵심 간부들은 이러한 증산 출세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암흑기를 잘 버티면 반드시 특정 시점에 증산이 출세하여 지상낙원의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줄 것을 기원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차경석은 자신과 증산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어떻게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보천교 간부들은 증산과 차경석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 ⑥ 五日에 銅谷에 이르시니 數日 後에 泰仁으로부터 無事히 된 顚末을 報告하거늘 가라사대 "井邑일은 하로 公事인대 京石에게 맛겻더니 一朝에 끝으고 泰仁일은 하로 아참 公事인대 京學에게 맛겻더니 一日을 걸넛스니 京石이 京學보다 낫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京石은 兵判가음이오. 京學은 爲人이 直腸이라. 돌니기 어려우니 돌니기만 하면 善人이 되리라" 하시니라.[43]

> ⑦ 十一月 二十八日에 先生이 井邑 大興里 車京石의 집에 이르사 布政所를 定하시고 公事를 行하시니 大略 如下하니라.[44]

---

40)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22.
41)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9.
42)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09.
43)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75.

⑧ 이 때에 皇極數를 돌니시며 여러 從徒들에게 所願을 무르시고 다시 京石에게 所願을 무르시니 京石은 裂地를 願하거늘 先生이 가라사대 "너는 兵部가 맛당하다" 하시니 京石이 不快히 녁이는지라. 先生이 가라사대 "直臣이 아니면 兵權을 맛기기 어려움으로 이제 特히 네게 맛기노라" 하시니라.[45]

⑨ 기유 정월 초일일 聖師 本家에서 天師께옵서 玄武經과 病勢文을 쓰시어 聖師에게 傳授하시면서 "모든 일이 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루기가 누에 기루기와 같하야 成熟早晩이 人工에 있나니라."하시고 또 가라사되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어 물샐틈없이 度技를 놓았으니 제 限度에 돌아잣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니 平天下는 내가 맡고 治天下와 人事處理에 대하여서는 너에게 맡기노라. 조심하여 잘 처리하라." 하시다. 己酉 정월 초삼일 昧爽에 告事 致誠祭를 천지신명에게 거행할 새 聖師主로 하여금 攀天撫地로 祭禮를 代行하시다.[46]

위의 ⑥과 ⑧은 증산이 차경석의 인물됨을 평가하며 병권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는 내용이다. 또 증산은 1909년 음력 정월 2일 『사기(史記)』의 구절 "곤 이내는 과인이 다스리고 곤 밖은 장군이 다스린다(閫以內朕制之, 閫以外將軍制之)"[47]를 인용하였는데, 차경석은 이것을 자신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짐은 곧 증산이며 장군은 곧 차경석 자신으로 보아 계승을 주장한 것이다. ⑨에서 증산은 차경석에게 자신의 친필 문헌인 『현무경』과 「병세문」을 전달하며 스스로 평천하(平天下)를 맡고 차경석에게는 치천하와 인사처리를 맡긴다고 하였다. 또 차경석은 1909년 정월 3일 아침 증산의 뜻에 따라 천지신

44)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1.

45)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2.

46) 보천교중앙총정원, 『보천교지』 (정읍: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396.

47)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2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0절. "그리고 어느 날 상제께서 경석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밑에 서시고 종도들을 줄을 지어 앉히신 다음에 북쪽을 향해 휘파람을 부시니 별안간 방장산으로부터 한 줄기의 안개가 일더니 사방으로 퍼져 문턱과 같이 되었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곤이내 짐제지 곤이외 장군제지(閫以內朕制之 閫以外將軍制之)'라고 말씀하셨도다."

명에게 고사 치성을 행하였는데, 그는 이를 정통성을 계승받는 의례라고 주장하였다. 일제의 공문서에서는 이 의례를 '교통전체식(敎統傳體式)'이라고 하였다.[48)]

차경석은 무라야마 지쥰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교통 계승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 村山曰: 甑山 敎祖께서 逢着하신 3년 만에 敎統을 傳하시고 天化하셨따니 그 時에 敎統 傳하였음으로 敎主가 되였은즉 其時 弟子 中에 首弟子가 된 때문에 敎統을 傳하였음니가. 또한 敎統을 傳할만한 자격이 有함으로 傳하게 되었음니가.
>
> 敎主曰: 敎祖께서 나를 만나기 前에난 農笠만 쓰고 단이시다가 나를 만난 후로부터는 나도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衣冠을 하겠다 하시고 衣冠을 하신 일도 이섯고 또 이 地方을 떠나실 때에 내가 代로 바든 證據가 有하니 己酉年 正月 初三日 告祀致誠을 올닐 때에 牛羊 祭物을 만히 準備하고 壁上에 設位하고 배례를 가로치고 祭法을 가르치신 후에 나로 하여금 代祭하라 하시고 此地를 離하시다. 其後 天化時에야 面會하였고 또 나는 친히 듯지 못하였지만는 他人이 듯고 傳하는 말에 依하면 銅谷에서 化天하시기 前에 衆人의게 말삼하시되 天地神明 公判에 내가 井邑 車京石을 잘 定하야 失手가 업다. 사람 잘 알아 썻다고 하시드라 한다.[49)]

위에서 보듯이 차경석은 증산이 자신을 만나고 나서 만날 사람을 만났다고 하며 의관을 정제했을 정도로,[50)] 자신이 다름 아닌 '교통전수식(敎統傳授式)'의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제로서 증산은 차경석을 병조판사 또는 장군에 비유하였고, 자신은 평천하를 맡고 차경석은 치천하를 맡으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8) 全羅北道,『普天敎一般』, 10. '교통전체식(敎統傳體式)'이라는 표현은 오류라고 생각되며 '교통전수식(敎統傳授式)'이라 해야 할 것 같다.

49) 보천교중앙총정원,『교전』(문화사, 1981), 503-504.

50) 보천교에서 발행한『敎祖略史』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丁未年 五월 十七日에 金溝郡 巨野酒店에서 車敎主를 逢하사 車敎主가 井邑으로 가시기를 懇請하니 敎祖께서 짐짓 拒絶하난듯하면서 誠意를 試驗코자 十餘日間을 金士裕 水砧室에서 留連하시다가 六月 三日에 井邑郡 笠巖面 大央里 車敎主本第로 來하시다. 敎祖께서 車敎主를 만나시기 前에난 삿갓(農笠)만 쓰고 단이심으로 世人이 狂人으로 指目하더니 車敎主를 逢着하신 後로부터난 '나도 만날 사람을 만낫으니 衣冠을 하겠다'하시고 衣冠을 具하시다." 저자미상,『敎祖略史』(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4-6.

차경석에게 병조판서, 장군, 치천하 등의 봉직을 하사하는 언설은 비유적·상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 또는 직접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옥황상제로서 증산이 천지를 개벽하여 후천 세상을 열어나가는 데 차경석을 병조판서나 장군과 같은 주요한 인물로 쓴다는 의미일 것이다. 직접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 곧 증산이 우주의 주재자로서 출세할 때 차경석에게 정치적 권한을 내려 조선 및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증산 당대 및 보천교인들은 후자의 해석에 치우쳤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의 제자 중 신원일은 "청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하므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고서(古書)에 천여불취 반수기앙(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나이다"[51]고 할 정도로 직접적인 해석의 여지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곧 차경석이 등극한다는 설은, 증산의 출세와 함께 천지가 개벽되고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며 증산의 수제자인 차경석이 증산의 권한을 받아 조선의 왕 또는 천자가 된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보천교 핵심 지도층에서는 증산 출세설을 근간으로 차천자 등극설을 내세웠지만, 증산을 잘 모르거나 보천교의 핵심 교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민중들은 대체로 차천자 등극만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2. 출세 시기

차경석의 주된 종교적 신념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증산에 대한 믿음과 그의 출세에 관한 설이다. 증산 출세설은 인간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천지공사를 행하다 세상을 떠난 증산이 천상의 옥황상제로 있다가 다시 초월적 존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교설이다. 증산 스스로는 출세의 시점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만 그를 잘 믿고 수행하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차경석은 증산의 출세 시기를 특정하는 시한부론을 내세우며 그 시점을 중심으로 종단의 힘을 집중하였다가 출세가

5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3장 18절.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시기를 연장하였다.

차경석이 처음 지목한 시기는 1924년 갑자년이다. 보천교 신도들의 판결문에서도 대다수가 갑자년에 증산이 출세하고 차경석이 개국할 것이라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갑자년 음력 3월 15일이나 16일, 음력 4월 8일[52], 동지날[53] 등이 언급되었다. 위 날짜에서 음력 3월 15일과 16일은 주희의 제자인 채침(蔡沈)이 찬술한 『서전(書傳)』의 서문인 '서전서문(書傳序文)'과 관련이 있다. 증산은 종도들에게 "書傳序文을 萬遍口誦하라 大運이 그에 잇나니라."[54]고 하였다. 이 '서전서문'의 끝에 "嘉定己巳三月旣望, 武夷蔡沈序"라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3월 기망(旣望)인 3월 16일 또는 3월 15일을 증산의 출세일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출세가 없이 해당일이 지나자 다시 갑자년의 특정 날이 지목되었다. 갑자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동지가 지난 시점이 되자, 차경석은 합당한 대답을 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에서는 "등극 당일 즉 동지(冬至)날(보텬교 네 치성의 한날)에는 교도를 모아 량쪽으로 갈라 세우고 차경석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며 등극 날이 오늘인데 이날 등극을 못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잇는 중 더욱이 옥황상데의 말슴으로 때가 아즉 조곰 이르다는 까닭에 오날 등극을 미루어 오는 립춘(立春)날 즉 음 래년 정월 열 이튼날은 긔어히 등극할 터인즉 그리 알라하고…"[55]라고 하였다. 즉 차경석은 갑자년에 출세가 이뤄지지 않자 옥

52) 「普天敎主 車京錫이 甲子 四月初八日에 조션, 일본, 중국의 텬자로 등극한다고…」, 『동아일보』 1924.01.12.

53) 「糞窖中 蠢動하는 時局大同團 2, 甲子 冬至 一過後 登極도 遁甲藏身」, 『동아일보』 1925.01.13.

54)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0; 『대순전경』 초판에는 "하로는 여러 從徒들에게 일너 가라사대 大運을 바드려 하는 者는 書傳序文을 만히 誦讀하라하시고 또 가라사대 '且生於數千載之下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亦己難矣'의 一節은 淸水를 써놋코 닑을만한 句節이라 하시니라."라고 하였다.(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06) 대순진리회의 『전경』 교법 2장 26절에는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 서문(書傳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라 하였다.

55) 「糞窖中 蠢動하는 時局大同團 6, 登極日을 延期 오는 립춘날로」, 『동아일보』 1925.01.17.

황상제의 말씀으로 시기를 늦추며 이듬해인 1925년 을축년 입춘일을 등극 시기로 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년을 지목하였던 것인가? 당시 갑자년은 차경석의 보천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교들 또한 등극의 시기 또는 교단의 개창 시점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해로 인식하였다. 일제강점기 계룡산 신도안에 신앙촌을 건설한 상제교(上帝敎)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교주 김연국(金演局)이 신도안에서 등극한다고 하여 민중들이 계룡산에 모여들었었다.[56] 원불교에서는 소태산이 1924년 갑자년에 불법연구회를 창설하였는데, 3대 종사인 대산 김대거는 "궁을가에 갑자정월 초하루로 후천 구복 십이회란 말이 있다. 그 말은 갑자년부터 우리 회상이 건설된다는 것이다."[57]라고 하여 갑자년이 바로 '우리 회상' 즉 원불교가 세워진 시기라 말하였다. 그리고 민속에서도 갑자는 60갑자의 첫 해이자 상서로운 해이므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에 무슨 일을 시작하면 성공하게 되며 잘될 것이라 믿어왔다고 한다.[58]

판결문에서 보천교 신앙인들은 갑자년은 '유일하게 운세가 맞아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해'[59] 또는 '『비결서(秘訣書)』라는 제목 가운데 갑자년에는 세상이 일변한다는 예언'[60]이 있는 해 등이라 발언하며 시운과 비결을 통해 갑자년에 등극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당시 세간에서는 증산의 출세설보다 차경석의 등극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

56) 「所謂 登極을 팔어 民衆 속인 上帝敎해란 果然 무엇?」, 『조선중앙일보』 1936.07.08. "그리하야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甲年甲月甲日甲時)에는 김연국이 신도안에서 등극한다는 소문을 터치고 부하 김두환(金斗煥)은 북도두령(北道頭領) 김낙철(金洛喆)을 남도두령을 주어 담당한 지방에 가서 우매한 민중 속에 잠입하야 황당한 계룡산에 모여들게 하고 드러오는 대로 자기 수중에 가진 재산과 심한 사람은 생명까지도 히생하게 된 것이다."

57) 『대산종사법문집』 5, 「연도수덕(硏道水德)」.

58) '갑자년신앙', 『원불교 용어사전』

59)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67.

60)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76.

언론은 이 등극설에 대해 민중을 기망하여 재물을 갈취한다는 등 신랄하게 비판하였다.[61] 차경석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급작스럽게 진행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등극설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 (記) 당신이 윤 4월에 대시국 천자로 등극할 차로 상경하얏단 소문이 려항에 자자합듸다.
>
> (車) 나의 이번 상경하얏든 것은 전혀 나 개인의 친족에 대한 일을 보기 위함이오 등극 운운은 전혀 사실 업는 허황된 소문이올시다.[62]

그는 표면상 등극설을 부정하였지만, 증산의 언설을 신봉하였던 종도로서 증산의 출세설을 신앙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 아래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조선 민중들은 민족의 독립과 새 국가를 염원하면서 차천자 등극설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경석은 보천교 내분, 시국대동단 사건에 따른 언론의 비난과 민중의 성토, 일제의 탄압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차경석은 기사년인 1929년에는 반드시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 믿고 1929년 음력 3월 15일(서전서문에서 己巳三月旣望)[63]로 때를 정한 뒤 그날 성전의 신위를 봉안하고자 하였다. 세간에는 차경석이 해당일에 대시국(大時國) 천자(天子)로 등극식(登極式)을 거행할 것이라는 풍설이 퍼졌고, 일경은 방해 공작을 펼쳐 봉안식이 거행되지 못하도

---

61) 「糞窖中蠢動하는 時局大同團 2, 甲子 冬至 一過後 登極도 遁甲藏身」, 『동아일보』 1925.01.28.

62) 「登極說은 自己無視 2」, 『시대일보』 1925.05.28. 차경석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시모오카 츄지[下岡忠治]를 만나기 위해 입경하였었는데, 시대일보 기자 조준호(趙俊鎬)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차경석의 행방을 추적하다 그와 만나게 되어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한 내용은 『시대일보』 1925년 5월 27일-31일까지 5차례에나 걸쳐 상세하게 실려 있다.

63) 『매일신보』에는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즉 음력 4월 8일에 등극하려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未免할 因果의 法則 普天敎 漸次衰頹 五十餘萬 敎徒가 現在 數千으로 信徒들의 慘酷한 生活」, 『매일신보』 1929.08.24. "車天子(本名 車京錫)의 등극을 빙자하야 京鄕 各處에 支部를 設置하고 또 重要幹部 등을 各 地方에 特派하야 車天子가 己巳年 己巳月 己巳日 卽 今年 4月 初旬日에 登極만 하면…"

록 하였다. 차경석은 봉안식의 거행과 증산의 출세를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자 종교적 신념이 흔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천교 핵심 간부였던 이정립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차경석은 원래 천사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사 세기의 운로를 뭉치고 도수를 짜서 자기에게 붙여놓았으니 그 도수를 당하면 자기가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될 줄을 믿고 경신년을 기다렸으나 믿었던 바가 헛되게 됨에 이로부터 천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갑자년을 기다렸으나 뜻밖에 혁신운동이 일어나서 궁경에 빠지게 되었고 또 무진년에 처 이씨가 영안으로 천사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삼황오제신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천사를 심히 의심하였으며 더구나 기사 삼월기망은 천사께서 큰 운수를 받을 자는 많이 읽으라고 정녕히 말씀하신 서전서문의 끝 문구인즉 만일 천사께서 신성하시다면 이번만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봉안식까지 금지당하여 버렸으므로 이제까지 천사를 신앙하여 온 일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였다.…[64]

기록에서 차경석은 1920년(경신년), 1924년(갑자년), 1929년(기사년)을 증산의 출세와 자신의 등극 시기로 믿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자 마침내 증산을 원망하였다고 하였다. 1931년 음력 정월 간부들에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하던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니 그대들은 나에게 속았고 나는 증산에게 속았고 증산은 옥황상제에게 속은 일이라. 수원수구할 것 없으니 이제 교단을 해산하고 각히 고향으로 돌아가라."[65]며 종단의 해산을 선언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1929년 기사년 이후 보천교는 교세가 꺾이며 마침내 1936년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차경석이 신앙한 증산의 출세설은 기한을 정하였기 때문에 시한부론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생활, 가정, 교육 등의 일상적 가치는 뒤로 한 채 보천교의 종교 사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천교의 교단지인 『보광』 창간호에서도 "本務에 奔忙한 우리 교에서는 교육 뿐 안이라 모든 사회적

64) 이정립, 『증산교사』, 181-182.

65) 이정립, 『증산교사』, 182.

사업을 장려할 여가도 업게 됨은 유감이지만은 부득이의 事勢외다.”[66]라고 하여 보천교는 교육뿐 아니라 모든 사회 사업을 장려할 여가가 없다고 하였다. 또 상당수의 보천교인들이 전 재산을 종단에 기부하여 이른바 ‘탄갈자’가 된 뒤 생활터전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비참한 사례가 당시 언론에 종종 보도되었다.[67]

결론적으로, 증산의 출세설은 차경석이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종단을 발전시켰던 주요한 동인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차경석은 기사년인 1929년을 마지막 기대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종단 안팎의 고난 속에서도 종단의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에 신위를 봉안하는 봉안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봉안식마저 일본의 방해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차경석은 더 이상 교주로서 신앙운동을 전개할 동인을 잃어버렸다. 또 차천자 등극설을 믿고 재산을 헌납하며 그를 좇았던 보천교 신앙인들도 구심점을 잃고 점차 흩어지고 말았다.

Ⅳ. 독립운동과 성전 건축

차천자 등극설을 구성하는 한 화소는 독립운동이다. 다수의 신도들은 보천교 운동을 통해 독립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하였다. 판결문에서 대부분의 보천교 신도들은 독립운동이 교단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직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방식이 무장투쟁이 아닌 교세의 확충과 자금의 조달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보천교에 입교시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독립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모집하여 일부는 상해임시정부에 보내고 일부는 성전 건축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만식 같은 독립운동가는 보천교의 자금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에 사용하고자 보천교에 접근하기도 하였었다.[68]

이른바 1926년 시국대동단 사건 이전 보천교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을 교단

66)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38.

67) 「상투쟁이 거지떼 정읍 일대에 듸굴듸굴」, 『동아일보』 1925.01.17.

68) 「判決文」, 京城地方法院, 大正十四年 陸47號, CJA0000301, 1926년 7월 19일.

운동의 한 축으로 삼았고 신도들도 독립에 희망을 걸고 포교 및 의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일부 민중들은 보천교를 미신 사교로 바라보았지만, 차천자 등극설을 중심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로서 보천교를 긍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시국대동단 사건 이후 보천교는 친일 단체로 낙인찍히면서 사교 단체이자 반민족단체로 규정되었다. 즉 보천교는 시국대동단 사건 이전에는 항일의 이미지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친일 및 반민족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조 증산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고, 그것이 차천자 등극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증산의 일본 관련 전승 기록을 살펴보자.

>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 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69]

> 불가지에 류 찬명·김 송환·김 덕찬·김 낙범·이 치화가 모여왔도다. 이들에게 상제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본인이 백호 기운을 띠고 왔으니 숙호 충비(宿虎衝鼻)하면 해(害)를 받으리라. 그들을 사사로운 일로는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 범이 새끼 친 곳은 그 부근 마을까지 돌보아준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피란하는 길이로다.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느니라."[70]

기록에서 증산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척이 맺혀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6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공사 2장 4절.
7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예시 57절.

야 척이 풀릴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느리라.'고 하여 때가 되면 일제는 저절로 물러날 것을 예시하였다. 즉 증산의 사유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는 우리 민족이 더 큰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며 시운(時運)이 되면 독립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항일 독립투쟁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증산의 제자인 차경석 또한 위와 같은 증산의 교설을 직접 들었거나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경석의 사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는 갑자년 또는 기사년에 증산이 출세하고 자신이 등극함으로써 독립의 시운이 열린다고 보았다. 즉 차경석은 독립을 국제정치나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증산의 출세라는 초월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보천교 민중들도 증산의 출세와 차경석의 등극 그리고 조선의 독립에 대해 함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물론 일부 신도들은 차경석의 계룡산 건국과 독립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교조인 증산의 교설에 대해 잘 몰랐거나 아니면 교조 자체보다 독립과 개국에 더욱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독립운동 외 신문기사 등 여러 자료에서 보천교는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보천교는 왜 교단의 중점 방향을 성전 건축에 쏟았을까? 특히 일제의 감시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성전의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것일까? 이는 증산의 언행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하루는 상제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세월을 회과자책하여 내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낙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71]

인용문에서, 신선은 바로 증산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탕자는 바로 차경석과 보천교도들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증산이 출세를 말할 때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였는데, 그가 스스로를 신선으로 지칭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차경석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충실히 믿고 있었다면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는 증산의 가르침에 따라 증산의 출세를 염원하며 성전을 짓고 교도들을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V. 등극설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천자 등극설에 대해 교단 내에서 비판은 없었던 것인가? 1924년 이상호·이정립 형제를 중심으로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보천교는 신구파로 갈라지게 된다. 이러한 내홍이 있기 전부터 신파의 구심점인 이상호·이정립 형제는 갑자등극설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이정립이 사장으로 있었던 '보광사(普光社)'에서 발간한 잡지인 『보광(普光)』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거기에 수록된 '답객난(答客難)'은 문답식으로 보천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앙 대상을 '증산 천사(甑山天師)'로 설정하고 증산의 천지공사와 핵심교리인 일심(一心)·상생(相生)·거병(去病)·해원(解冤)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리는 간판에 불구하고 실은 비결 등을 선전한다는 비판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였다.

---

7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교법 3장 16절.

객: 귀 교에서 상생해원 등 교의는 세인의 이목을 遮掩하는 기만적 간판에 불과하고 내용으로 비결, 음양 등 미신적 운수관에 沈溺하야 愚夫愚婦를 惑誣한다니 차 소위 懸羊頭賣狗肉적이 안인가요?

답: 그게 무삼알삼이요. 이것이 모다 중상적 유언이외다. 오십 여만의 포교사 중 혹 그러한 말을 하엿슨넌지 알 수 업스나 우리 교의 근본 교의는 天師께서 가라처 주신 상생 해원 등 진리 쓴이외다.

객: 그러나 갑자 등 여러 가지 비결을 밋는 모양이든데요?

답: 연래 조선민족의 전통적 신념이 안임닛가 음양술수자류는 더 말할 것 업거니와 유생도 그 신념이 잇고 동학북학도 써들든 소리오. 30세 이상된 남자의 태반은 그것에 미혹된가 합니다. 우리 교인도 그 민족의 분자인 이상에 아조 그 신념이 업다고 하겟슴닛가마는 그것은 민족적으로 잇는 것이지 교리는 안이외다. 이 미신이 조선인의 보편적 고유설임을 알면서도 세간에서는 그것을 우리 교에 전가식히랴 함은 억하심정인지 아마 고의적 곡해인가 보이다.[72]

비결·음양 등으로 어리석은 민중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자는 포교하는 신도들이 그러한 말을 했을 수 있지만 근본 교리는 증산이 가르친 상생과 해원의 진리일 뿐이라고 하였다. 특히 갑자등극설에 대해서는 비단 보천교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반이 민족적으로 믿고 있는 '보편적 고유설'이지 보천교의 교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후 1924년 9월 시작된 보천교 혁신운동에서 혁신파 즉 신파측은 9월 16일에 서울에 위치한 경성진정원에서 혁신회 발회식을 거행하며 선언서를 발표하였다.[73] 선언서 원본은 1924년 9월20일 종로경찰서장이 작성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비밀문서[74]에 실려 있다. 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

72)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40-41.

73)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95-96;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549-550; 「撲滅을 自唱하는 普天敎의 內訌, 혁신하지 안흐면 업새자고 신구파가 난후여 야단법석」, 『시대일보』 1924.09.17.

74)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敎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보천교가 상생해원의 교의와 선경건설의 이상으로써 교문을 세운지 이제 21년이 되엇스며 모든 전통적 도덕, 인위적 죄악 하에서 고뇌하든 대중이 날로 귀의하야 발서 백만을 초과하얏다…그러나 보천교의 진정신은 의운에 가리우고 허위환영이 도장을 封碍하야 교의 운명이 조석에 달니엿다 볼지어다. 전제적 교법과 계급적 제도는 봉건시대의 유풍을 踏襲한 것이며 음양오행, 비결, 부록 등 미신사설은 □□ 천공의 마법을 傳鉢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문화는 저주하야 黔首를 愚昧케 함과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야 소수자의 사복을 충비함과 하등의 주의주장이 업시 다만 명수를 惑信하야 행운의 자치를 망상하는 등 모든 추태, 온갖 악행이 실로 금일 보천교의 특징이며 진상이다. 이제 그 내부의 □□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75)

즉, 보천교가 증산의 해원상생 교의와 선경건설의 이상을 도외시하고 음양오행·비결 등 미신 사설로써 민중을 속이고 고혈을 착취하였으며 소수의 상급 간부들이 재산을 착복하고 각종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음양오행·비결 미신 사설은 조선후기 민중 사상의 주축인 정감록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천교 신파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감록류의 신앙은 보천교의 참된 교리가 아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천교 신파측은 앞서 차천자 등극설의 화소 중 증산 출세설을 제외한 특정한 시기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하여 새 국가를 건설하며 참여한 이들은 관직을 수여받는다는 등(차천자 등극설의 화소에서 3·4·5·6·12)의 내용이 증산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보천교의 참된 교리를 가리는 그릇된 사설이라고 비판하였다.

교조인 증산 또한 일찍이 정감록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며 계룡산 건국의 허망함에 대해 말하였었다.

⑩ 어떤 사람이 계룡산에 정씨가 도읍하는 비결을 묻기에 상제께서 이렇게 이르시니라. "일본인이 산속만이 아니라 깊숙한 섬 속까지 샅샅이 뒤졌고 또 바다 속까지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75)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敎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측량하였느니라. 정씨(鄭氏)가 몸을 붙여 일을 벌일 곳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76]

⑪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고 다시 대답하셨도다.[77]

⑫ 김경학이 무신년 5월에 고부 와룡리 문공신의 집에 가서 상제를 뵈오니 상제로부터 "내일 일찍 태인 살포정에서 만나자"는 분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조반 후에 살포정에 이르니 그 주막에서 행객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상제께서는 큰길가의 높은 언덕에 돌아앉아 계시기에 올라가 인사를 드리니 인사만 받으시고 여전히 돌아앉으신 채 언짢게 계시는도다. 그는 까닭을 모르고 송구한 마음으로 모시고 서 있노라니 잠시 후에 상제께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만 두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싸움을 그치고 제 길을 가는지라. 그때에야 경학이 "어떤 사람들이 싸웠나이까"고 여쭈어 보았더니 상제께서 "우리 겨레에서 정 감(鄭堪)을 없앴는데도 세상에서 정 감의 노래가 사라지지 아니하기에 혹시 이(李)씨가 정(鄭)씨의 화를 받을까 염려스러워 이제 그 살을 풀고자 이씨의 기운을 돋우고 정씨의 기운을 꺾는 공사를 보았노라" 일러 주시니라.[78]

⑬ 속담에 짚으로 만든 계룡(鷄龍)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올바로 일러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79]

⑩과 ⑪은 당시 사람들이 신통한 예지와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증산에게 정감록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정감록이 얼마나 널리 유행했었고, 그것이 당시의 민중에게 얼마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증산은 그 질문에 대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

7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교법 3장 39절.
7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교법 3장 40절.
7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권지 2장 29절.
7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예시 65절.

오'라고 부정적으로 답하며 계룡산 건국설이 낭설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⑫에서 보듯이, 1908년 5월 증산은 '정감의 노래'를 비판적으로 말하였으며, ⑬에서처럼 '짚으로 만든 계룡'으로 계룡산의 무의미함을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천교의 교조 증산은 정감록의 핵심 내용인 계룡산 건국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며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가르침을 남겼다.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라는 제자의 간언에도 증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증산의 교설은 특정의 때에 특정 지역에 특정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논의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

증산의 교설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보천교 신파의 주축인 이상호·이정립에 의해 1926년 처음으로 『증산천사공사기』로 편찬된 점에서, 위 정감록에 대한 증산의 교설이 얼마나 보천교인들에게 수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의 보천교 민중은 정감록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신파 지식인들만이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Ⅵ. 결론

종교적 인간의 각성과 신념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정신과 맞물려 사회적 변동과 혁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보천교 교주 차경석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공론화 되었던 사례를 조명해 보았다. '차천자 등극설'이야말로 차경석의 종교적 신념과 당대 보천교 민중들의 호응도를 읽어낼 만한 교설이라는 점에서 천착할 만한 연구 소재라 할 수 있다.

차천자 등극설의 내용은 교조 강증산이 환생한다는 '증산 출세설', 교주 차경석이 '대시국'을 연다는 개국설, 그리고 독립운동설 등을 주축으로 한다. 필자는 증산 출세설이 바로 차경석의 종교 활동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증산의 제자인 차경석은 1909년 증산이 서거하였지만 천상에 올라 옥황상제의 신격에 머무르다 특정 시기가 오면 다시 출세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출세

와 더불어 교통(敎統)을 전수한 자신에게 새로운 국가를 열게 하여 민족의 해방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 보천교 민중 또한 교주의 신념에 공명하여 증산의 출세와 차경석의 등극을 믿고 장차 자신들이 새 국가의 일원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보천교 내부에서도 차천자 등극설을 거부하며 그것이 증산의 참된 교설이 아니라고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증산의 언행을 담은 전적을 살펴보면, 차천자 등극설의 일부 내용은 증산의 교설과도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증산 출세설은 증산의 교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개국설과 독립운동 관련 내용은 증산의 교의와 궤를 달리한다. 특히 개국설의 경우, 다수의 신도들이 '계룡산 개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증산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의 정감록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독립운동 관련 내용도 당시 독립을 염원하였던 민중의 희망과 기대가 보천교 및 교주 차경석에게 투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이래로 민중 사상의 조류로 흘러온 정감록 사상, 신이한 종교 인물로 알려진 강증산의 출세설, 증산의 제자인 차경석이 대시국을 열 것이라는 개국설, 독립운동 관련 내용 등이 어우러진 차천자 등극설은 1920년대 한국인들의 신앙심을 한껏 달구었다 냉각시킨 담론 및 실천의 주제였다.

주제어: 강증산, 차경석, 보천교, 정감록, 독립운동

원고접수일: 2021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9일

참고문헌

강돈구, 「신종교 연구의 길」, 『한국종교』 23 (1998): 121-152.

김철수. 「일제강점기 보천교 관련 신문기사의 실태와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4』,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2018.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敎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대산종사법문집』 5.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보천교중앙총정원, 1981.

_____. 『보천교지』.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박맹수.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2015): 133-157.

박종렬. 『차천자의 꿈』. 고양: 장문산, 2002.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2.

이강오. 「보천교」. 『전북대학교 논문집 8집』, 전북대학교, 9-73. 1966.

이능화. 「朝鮮古代神敎已行」. 『조선불교통사』 하편, 新文館, 1918.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京城: 東華敎會道場, 1929.

_____.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도서출판기역, 2017.

저자미상. 『敎祖略史』.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全羅北道.『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B393, 1926.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20, 1923년 4월 4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738, 1919년 1월 16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2172, 1921년 6월 27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刑第158號, CJA00021725, 1921년 6월 2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4월 22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158號, CJA0002172, 1921년 6월 2일.
「判決文」, 京城地方法院, 大正十四年 陸47號, CJA0000301, 1926년 7월 19일.
平安南道.『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M2-100, 1924.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중앙일보』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the Ascension to the Throne of Cha Kyung-seok in the 1920s

Park, Ingyu (Daejin Univ.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e religious enlightenment and beliefs of a religious leader can cause repercussions and innovations and profound social changes in line with the social zeitgeist. This thesis is intend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beliefs and the people's acceptance by illuminating the religious beliefs of *Cha Kyung-seok*, the head of *Bocheongy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had repercussions in Korea and became a public opin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doctrine that wa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Cha Kyung-seok*'s religious beliefs and the people's acceptance of them is the 'the theroy of the ascension to the throne of Cha Kyung-seok(*Chacheonja Deunggeuk* theory)'. The contents of *Chacheonja Deunggeuk* theory are based on several theoretical points: '*Jeungsan*'s reincarnation', the creation of a new country by the founder *Cha Kyung-seok*,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In this paper, I take *Jeungsan*'s reincarnation theory as a key motive of *Cha Kyung-seok*'s religious activities and try to delve into its contents. *Jeungsan*'s reincarnation theory is based on the doctrine of *Jeungsan*, but the doctrine of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s differ from *Jeungsan*'s teaching. Therefore, *Chacheonja Deunggeuk* theory is the combination of the thought of *Jeonggamrok* which has flowed into the current of popular thought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Jeungsan*'s reincarn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the creation of a new

country and independence movements by *Cha Kyung-seok*. Together with the related contents, it caused a great repercussion and rapidly cooled down in colonial *Joseon* in the 1920s.

Key words: *Kang Jeung-san*, *Cha Kyung-seok*, *Bocheongyo*, *Jeonggamrok*, independence movements